|  |
| --- |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  |
| --- |
| **정 정 보 도 자 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구조개편으로 사라진 부서는
 ‘품질 보증실’이 아닌 ‘품질 평가실’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이 11월 5일자 품질검증서 위조 관련 성명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품질보증실’조차 최근 조직개편에서 없애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품질보증실’이 아닌 ‘품질평가실’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는 가동원자력규제단과 건설원자력규제단이 있는데 품질평가실은 가동원자력규제단의 하나의 부서(실)로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가동안전총괄실과 기계구조재료실, 계측전기실 등 소관업무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는 ‘가동원자력시설 품질보증 규제에 관한 사항(총괄)’과 ‘소관업무 관련분야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각 실은 12명에서 7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품질평가실 역시 그 정도 규모의 인원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업무가 분산된 상황이라서 현재 품질검증서 위조 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링크

http://www.kins.re.kr/about/abo\_organization.asp?top\_menu\_id=1139&menu\_id=1142&div\_id=4

2012. 11. 6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